



## 미 증시, 달러 초강세, 금리 급등으로 하락

### 미국 증시 리뷰

6 일(화) 미국 증시는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 결과를 소화하는 가운데, ECB 회의 불확실성,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호조로 인한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 부각, 미 국채 10 년물 금리 급등이 악재로 작용하며 하락 마감 (다우 -0.55%, S&P500 -0.41%, 나스닥 -0.74%, 러셀 2000 -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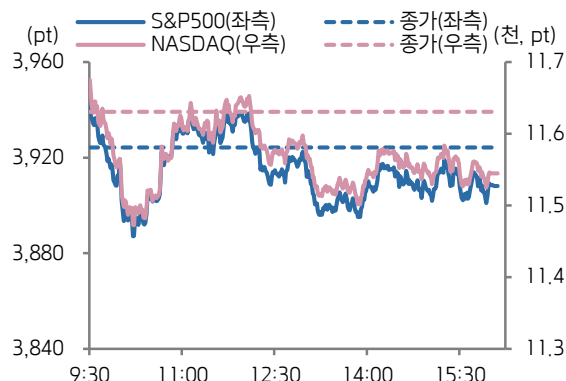
미국 8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56.9(예상치 55.3, 전월치 56.7)로 예상치 상회. 생산지수 59.9 → 60.9, 신규주문 59.9 → 61.8, 고용 49.1 → 50.2, 수출주문 59.5 → 61.9 등이 크게 개선된 반면, 공급자배송지수 57.8 → 54.5, 물가지수 72.3 → 71.5 등은 하락하며 전월대비 개선.

비농업고용의 선행지표인 8 월 컨퍼런스보드 고용추세지수(ETI)는 119.06(전월치 118.02)로 상향. 집계측은 일자리가 견조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고용 성장은 둔화될 것이라고 언급. 한편 8 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는 43.7(예상치 44.3, 전월 47.3)로 20 년 5 월 이후 최저치 기록, 기준선 50 을 하회하며 위축 국면에 진입.

ISM 서비스업지수 발표 이후 미국채 10 년물 금리는 5% 급등한 3.3%, 2 년물 금리는 3% 급등한 3.5%대 진입. 달러화 역시 110pt 대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 경신. 전일 호주 RBA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 회 연속 50bp 인상 단행하며 2.35%로 결정, 긴축적 행보 지속. 이번주 캐나다 중앙은행, ECB 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BOJ 의 완화적 행보가 부각되며 엔화 약세가 심화된 점 역시 강달러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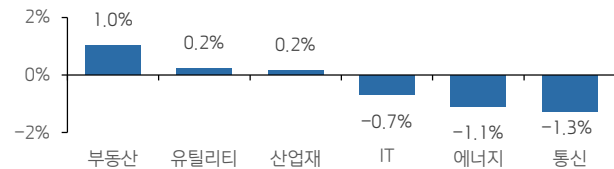
업종별로 부동산(+1%), 유틸리티(+0.2%), 산업재(+0.2%)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통신(-1.3%), 에너지(-1.1%), IT(-0.7%) 업종은 약세. OPEC+의 감산과 유럽발 에너지 위기 부각에도 중국의 경제 봉쇄 조치가 연장되었다는 소식에 유가가 약보합 마감한 영향으로 에너지 업종 차익실현 매물 출회. 애플(-0.82%)은 디지털 앱 광고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과 신제품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약세로 하락.

###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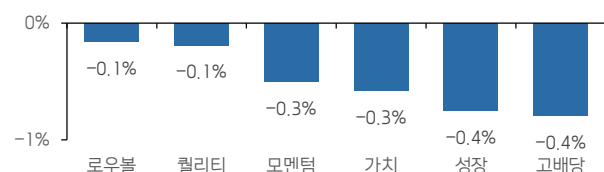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 주식시장        |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S&P500      | 3,908.19  | -0.41% | USD/KRW   | 1,373.60 | +0.12%  |
| NASDAQ      | 11,544.91 | -0.74% | 달러 지수     | 110.23   | +0.63%  |
| 다우          | 31,145.30 | -0.55% | EUR/USD   | .99      | +0.01%  |
| VIX         | 26.91     | +3.54% | USD/CNH   | 6.97     | +0%     |
| 러셀 2000     | 1,792.32  | -0.96% | USD/JPY   | 142.77   | -0.02%  |
| 필라. 반도체     | 2,571.47  | -1.07% | 채권시장      |          |         |
| 다우 운송       | 13,664.55 | -0.53% | 국고채 3년    | 3.680    | +6.5bp  |
| 유럽, ETFs    |           |        | 국고채 10년   | 3.712    | +4.7bp  |
| Eurostoxx50 | 3,500.14  | +0.29% | 미국 국채 2년  | 3.503    | +11.6bp |
| MSCI 전세계 지수 | 602.32    | -0.43% | 미국 국채 10년 | 3.349    | +16bp   |
| MSCI DM 지수  | 2,584.97  | -0.45% | 원자재 시장    |          |         |
| MSCI EM 지수  | 965.24    | -0.26% | WTI       | 86.88    | +0.01%  |
| MSCI 한국 ETF | 54.96     | -1.73% | 금         | 1712.9   | -0.56%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19%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8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78.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체크 사항

1. 글로벌 달러화 초강세, 미국 금리 급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2. 연휴기간을 앞둔 관망심리 심화로 인한 거래 부진 가능성
3. 고환율 수혜주, 에너지 위기 관련 친환경주들을 중심으로한 차별화 장세 전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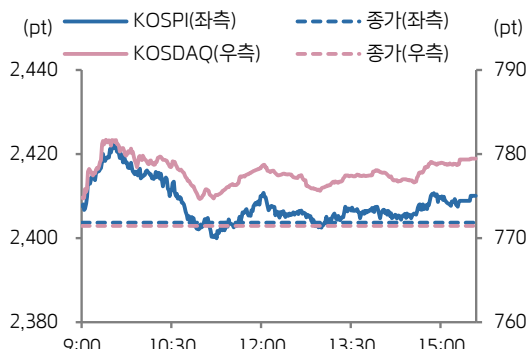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8 월 말 잭슨홀 미팅 이후 그간의 상승을 상당부분 반납하며 조정을 받았던 주요국 증시는 9 월 들어서도 좀처럼 주가 복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양상. 8 월 미 CPI, 9 월 FOMC 등 월 중순 이후 대형 이벤트를 둘러싼 경계심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현시점에서는 채권 및 외환시장에서 출현하고 있는 악재가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8 일(목) ECB 통화정책회에서 50bp, 75bp 인상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패리티(달러와 1 대 1)가 깨진 유로화의 변동성을 수시로 자극하고 있는 상황. 에너지 위기가 심해지고 있는 유로존의 경제 실정을 고려했을 때 금리인상 자체만으로도 경기에 추가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로화 패리티 회복을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반면 미국은 8 월 ISM 제조업(52.8, 예상 51.9), 서비스업(56.9, 예상 55.1) PMI 결과가 시사하는 것처럼 여타 국가들에 비해 경기가 견조하다는 점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모습. 이로 인해 달러 인덱스 약 20 년만에 처음으로 110 선 돌파한 가운데, 9 월 FOMC에서 75bp 인상확률도 재차 급등(2 일 57%→ 6 일 72%, CME Fed Watch)했으며, 10 년물 국채금리도 3.3%대 진입하는 등 달러 강세,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 중에 있음. 각 자산시장에서의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과도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8일 ECB 회의와 13일 미 CPI 이벤트를 소화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취약해진センチ먼트가 만들어내는 시장 가격 변수들의 변동성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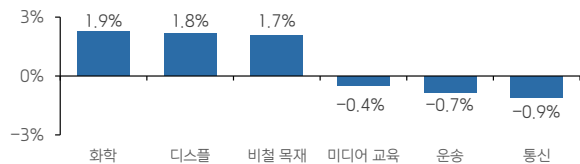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성장주들의 낙폭과대 인식성 매수세 유입, 에너지 위기로 인한 친환경 관련주들의 수혜 인식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0.3%, 코스닥 +1.0%). 금일에는 글로벌 달러화 초강세, 미국 금리 상승 등에서 기인한 선진국 증시 약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제한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또 한국은 9일(금)~12일(월) 장기 휴장을 앞두고 있으므로 연휴기간 중 발생 가능한 대외 불확실성을 염려한 거래 부진 현상이 이어질 전망. 이를 감안 시 최근 1,380 원대 근처까지 진입하는 원/달러 환율 급등 구간에서도 양호했던 외국인 수급 환경은 금주 남은 2 거래일동안 보수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 따라서 금일에도 대형주를 중심으로한 지수 움직임은 취약할 것으로 보이며, 고환율 수혜주, 에너지 위기 수혜주 등 특정 업종과 테마주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판단

###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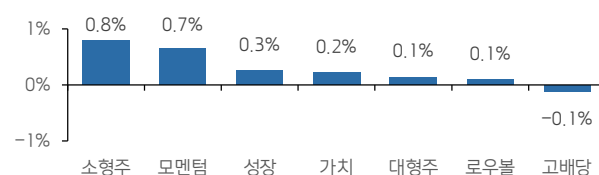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